특집논문 | **비자본주의적 주체 구성과 권리**

소비주의 비판과 대안적 쾌락주의*
비자본주의적 주체성 구성을 위해**

The Critique of Consumerism and Alternative Hedonism:
For Constituting the Non-Capitalist Subjectivity

서영표***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소비 행위로 구성된다. 생산이 없는 소비가 있을 수 없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소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소비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삶에 의해서 '욕망하는 주체'로 구성된 우리들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삶의 양식에 의해 구성된 주체들이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탈현대사상가들에 의해 비판받는 많은 '해방'이론들은 이러한 이론적 난제에 직면해서 규범적으로 구성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주체를 상정하거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인에 의한 계몽전략을 추구했다. 전자의 관념론적 경향은 후자의 권위주의적 모델의 거울상에 다름 아니었다. 관념론적인 주체 구성을 넘어서면서도 권위주의적 모델로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 그 자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주체의 지속적인 분열과 탈구를 주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지향의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쾌락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간극 때문에 욕망하는 주체로 구성된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은 항상 불안정하며 저항적 주체 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케이트 소퍼(Kate Soper)의 대안적 쾌락주의(alternative hedonism)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 프로젝트 KRF-2008-J02401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익명 심사자들의 날카로운 논평에 대해 감사한다.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seoyp@hanmai.net)

www.kci.go.kr

개념을 통해 불안정한 주체성과 대안적 주체 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어: 소비주의,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대안적 쾌락주의, 여성주의 관점이론, 안토니오 그람시

1. 머리말

생태사회주의 또는 생태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자원고갈,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생태위기는 맹목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그것이 초래하는 낭비 때문에 발생한다. 현금계산과 이윤극대화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필요(needs)보다 탐욕과 이윤을 우선시한다.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본가, 오직 시장의 힘만이 표현되는 가격신호를 따르는 자본가에게 인간과 자연환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nor)는 '두 번째 모순론'을 통해 이러한 자본주의의 생태파괴적 경향을 이론화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모순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라면 두 번째 모순은 생산과 생산의 조건, 즉 자연환경 사이의 모순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맹목적 생산방식은 스스로의 재생산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오코너는 주장한다. '두 번째 모순론'의 이론적 적실성은 학술적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오코노가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그리고 이윤추구적 생산과 환경파괴 사이의 연관을 주장함으로써 생태위기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와 연결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코너는 이러한 생태위기는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고 환경운동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공적 개입과 환경운동의 성장은 곧 경향적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가능성을 높인다고 암시한다(오코너, 1993).[1)]

www.kci.go.kr

하지만 오코너의 설명은 추상수준이 너무 높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초점을 맞추며 일상의 행위자들이 그 모순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 경쟁과 이윤의 논리로부터 고통받고 착취 받는 행위자들이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적 체제에 너무나 잘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분석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부족은 보통사람들의 경험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코너의 분석은 소비문제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자본주의적 이윤의 논리와 시장의 경쟁논리가 보통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매개는 소비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맹목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생산 활동으로 생태위기를 초래하듯이 소비자는 끝없는 소비의 추구(소비주의)를 통해 생태계를 위협한다.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은 생산적 모순에 국한된 비판담론을 일상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논리적 궁지에 이르게 한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소비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체제로부터 착취 받는 보통사람들의 '순응적' 소비행위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소비자들은 동시에 노동자·생산자임을 고려할 때 비판적 이론은 현실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주체들이 현실 순응적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많은 비판적 이론가들을 비관주의 또는 권위주의적 경향으로 이끈다.

이 글의 목적은 '소비' 문제에 주목하고 소비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선험적으로 정의된 당위(이론적으로 가정된 정의의 원리, 자율적 주체 등)에 의존하지 않는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종속적 주체화'와 '저항적 주체화의 가능성'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에 모

1) 오코너의 두 번째 모순론에 대한 논평은 많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그것의 조건 사이의 모순이 첫 번째 모순,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코너의 입장이 여전히 생산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제주의적 편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Benton(1996), III부를 보라.

www.kci.go.kr

순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재해석된 구조-행위 연계론을 소비주의 비판에 적용하는 것이다(서영표, 2009a: 101~123). 행위자는 구조에 효과에 의해 주체로 구성되지만 주체화 과정은 집단적으로 경험되는 모순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갈등적 과정임을 톰슨(E. P. Thompson)과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종합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 주체화 과정은 항상 탈주체화와 대안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비주의는 자본주의적 주체성이 구성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주체화의 맹아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실재론적으로 재해석한 그람시(Antonio Gramsci)를 여성주의 관점이론(feminist standpoint theories)과 결부시킬 것이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공통의 경험은 저항의 맹아적 가능성을 형성한다는 점은 그람시와 여성주의 관점이론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비판적 실재론자이며, 사회주의-여성주의-생태주의를 종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소퍼(Kate Soper)는 그람시와 여성주의 관점이론의 종합을 통해 제시된 주체화와 대안적 주체화의 공존을 소비문제에 적용한다. 그녀가 제시한 대안적 쾌락주의는 소비행위로부터 자본주의적 소비주의를 벗어나서 대안적 사회관계를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소비사회의 도래와 일상의 상품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소비 행위로 구성된다. 생산이 없는 소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소비' 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많은 비판적 사회이론가들이 1945년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비밀을 소비에서 찾았다. 단순화된 노동과 강한 노동 강도에 대한 대가로 서구의 노동자들이 얻었던 것은 소위

www.kci.go.kr

'풍요사회(affluent society)'였으며 이것은 높은 소비수준을 동반했다. 그러나 소비주의는 곧 노동자들을 체제 내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지적했듯이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문화의 창작과 향유마저도 상품화되고 획일화되어 '소비'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위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은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주의적 상품사회에 순응적인 인간들을 만들어 낸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억압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창조적인 고급문화의 창작 순간을 제외하면) 찾을 수 없었다(Adorno & Horkheimer, 1969). 마르쿠제에 의해 통찰력 있게 예견되었듯이 자본축적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필요(false needs, 아마도 후세대 이론가들은 욕망이라고 불렀을 것이다)를 상품화하고 그것을 통해 이윤의 토대를 확장해 나가는 자본의 힘에 달렸다(Marcuse, 1972; 2002/1964). 끝없이 우리의 의식을 파고드는 자극적이고 현란한 광고 속에서 무엇이 생물학적이고 인간적인 필요이고 무엇이 욕망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이전의 서구사회에서는 소비주의의 확장은 다른 한편으로 보건·주택·교육·교통 등 소위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 부분을 탈상품화하는 과정과 병행되었다. 물론 카스텔(Manuel Castells)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탈상품화된 집합적 소비부분은 또 다른 정치투쟁의 쟁점을 형성했지만 상품화와 탈상품화의 과정이 공존했으며 자본주의적 팽창을 지탱해줄 배후지로서의 비시장적 관계와 지역이 존재했다.[2]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이러한 일종의 균형을 깨트려 버렸다. 균형의 붕괴가 가져온 효과는 비단 서구사회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된 외채와 구제금융을 수단으로 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전 세계를 일방적인 상품화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 넣었다(Glyn, 2007). 길(Stephen Gill)의 표현을 빌자면 시장 문명

2) 집합적 소비에 대해서는 Castells(1977, 1978)을 참조하라. 서영표(2009a: 138~156)는 카스텔의 입장을 하비와 대비하면서 요약하고 있다.

www.kci.go.kr

(market civilization)의 전면화로서의 신자유주의는 푸코적인 의미에서의 규율권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Gill, 1996).[3] 디킨스(Peter Dickens)는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모든 공동체적 원리를 소멸시키고 끝없는 경쟁과 그에 동반되는 비교를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이 심리적 궁핍화(psychic immiseration)를 경험하게 한다(Dickens, 2008).

이러한 끝없는 욕망에 기댄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를 소비자 주권시대로 묘사하면서 소비사회를 가장 민주적 사회로 찬양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현실 정치에 관철시켰던 영국의 전 총리 대처(Margaret Thatcher)는 잘 정비되어 있었던 지방정부 관할의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es)을 사유화하면서 그것을 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체제를 정비하고 교통비를 낮추려는 좌파성향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승용차 소유자 민주주의(private car owner's democracy)를 외쳤다.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공공서비스의 현장에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시장 논리를 관철시키려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생산자이고 학생은 소비자인 것이다(Jessop et al., 1988과 Devine et al., 2009를 보라).

다른 한편 몇몇 중도좌파적인 사회이론가들은 소비사회의 대두를 후기근대성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소비과정에서 개인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흔히 성찰성(reflexivity)의 고도화라고 불리는 이러한 후기근대성의 특징은 생활정치로까지의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된다. 기든스는 이것을 소위 삶의 정치(life-politics)라고 말하며 그 원리는 대화라고 주장한다(Giddens, 1994: 90~92). 하지만 그는 결코 자본주의적 소비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소비사회를 세련되

3) 푸코의 규율권력에 관해서는 Foucault(1979)를 참조하라.

www.kci.go.kr

게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란 결국 평등과 분배, 그리고 연대의 원칙을 경쟁과 개인주의로 대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Driver & Martell, 1998; Finlayson, 2003; Clarke, 2005를 참조하라).[4] 성찰성은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미덕일 뿐이다.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담론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소비사회에 대한 일방적 찬양이며, 그 반대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것에 대한 극단적 비관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글의 후반부에서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비관주의적 시각에서 현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론조차 역사적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효과라는 것을 보이도록 할 것이다.

3. 소비주의사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자유주의자들의 사회분석은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초역사적인 인간 본성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는 이러한 이기적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구성된다. 이기적 개인 행위자들은 언제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며 스스로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류경제학은 이기적 인간 본성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 구성된다. 맥퍼슨이 자세하게 분석했듯이 이러한 이기적 본성의 전제는 분명히 부르주아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구성된 것이다.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4) 다양한 탈현대 사상은 소비주의의 확산과 상품논리의 전면화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제임슨(Frederic Jameson, 1992)과 하비(David Harvey, 1991)의 입장에서 탈현대주의는 자본주의가 문화영역까지 확장되는 것 또는 포트스포디즘의 문화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탈현대주의가 소비주의의 확산과 상품논리의 전면화라는 물질적 조건을 포착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신자유주의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탈현대주의에 대한 좀 더 전면적인 비판은 켈리니코스(Alex Callinicos, 1989)를 참조하라.

www.kci.go.kr

individualism)라고 명명된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은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인 것이다(Macpherson, 1964).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시대적 산물인 이기적 인간 본성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이해할 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기적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제도이기 때문이다.

모스(Marcel Mauss, 2002)의 인류학적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크로포트킨(Pyotr Kropotkin, 2005)의 상호부조론, 프루동(Joseph Proudhon, 2003)의 소유 비판을 거쳐 폴라니(Karl Polanyi, 2009)의 시장사회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학자와 사회사상가는 개인적인 소유권에 근거한 사회조직은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국한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5] 물론 종종 자본주의적 원리와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이 초역사적 '인간 본성(human nature)'이라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공동체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인간 본성을 제시하는 것에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마르크스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학적 전통은 인간의 주체성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산물로 분석한다. 물론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도 유사한 이론적 근거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의 공헌은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주체성을 역사적·문화적 산물로 분석하면서도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적대와 갈등을 둘러싼 투쟁을 이론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특정한 물질적 생산조건과 이데올로기적 지형에서 형성되지만 그것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으며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변형적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Mouffe, 2005).[6]

---

5) 언급된 저작들은 멀게는 한 세기 전, 그리고 가깝게는 반세기 전에 출간되었다. 다양한 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의 출판연도를 굳이 표기하지 않고 최근의 한글 번역본의 출간 연도를 표시했다.

6) 인간 본성의 역사적 구성을 강조하는 것이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

www.kci.go.kr

1) 상품과 시장 논리의 전면화

잘 알려져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자유화(시장개방), 탈규제, 세금 감면, 사유화,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일련의 정책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 국가적 타협의 시기 또는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발전체제의 시기에는 시장원리 작동으로부터 보호되었던 영역에까지 상품논리를 확장시킨다. 전통적 형태의 결사들과 공동체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직접적으로 복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사들과 공동체들은 과거의 역사적 유제이기도 했지만 시장이 강제하는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과 협동조합들도 전통적 형태의 공동체들과 함께 비시장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서구의 복지국가는 집합적 소비의 영역을 탈상품화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논리의 전면화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O'Neill, 2006: 21~22를 참조). 첫째, 신자유주의는 상품과 시장의 논리로부터 보호되었던 공공서비스 영역을 시장 원리에 재편입시켰다. 탈상품화되었던 영역을 재상품화하는 것이다. 하비의 지적처럼 이러한 재상품화는 자본에 새로운 축적 영역을 제공해주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에 다름 아니다(Harvey, 2003).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의 전면화가 초래한 두 번째 변화는 비시장적 사회관계들로의 시장원리의 침투이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마저도 상품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처럼 다루어진다. 비시장적 관계들로의 시장원리의 확장은 새로운 상품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개인적 안전, 노후 대책, 장례의식 등과 같이 과거 공공성에 의해 지탱되거나 공동체적 연대 망에 의해 보장되었던 일상생활의 의식

적 특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자연주의(naturalism)에 기초한 유물론적 분석에 대해서는 서영표(2009b)를 참조하라.

www.kci.go.kr

과 절차들마저도 상품논리에 귀속되면서 새로운 이윤창출의 영역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동반된 세 번째 결과는 정부의 공공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보수집조차도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받는다. 정부 정책 영역의 대부분에 시장이 존재할 수 없지만 정책 수립 단계에서 가상의 시장을 상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에서 지적했던 교육 영역으로의 시장논리의 침투는 학교를 기업처럼 만들고 대학을 이윤창출을 위한 연구소로 전락시킴과 동시에 교육정책 수립의 근거를 가상의 생산자-소비자 사이의 관계(가상의 시장)에서 찾는다(Sanbonmatsu, 2006). 각종 복지의 직접적인 공급자인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회운영원리의 상품화라고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탈상품화되었던 공공영역의 재상품화, 새로운 영역의 상품화, 그리고 상품논리의 사회운영원리로의 확장은 일상생활의 상품화를 가속화시켰다. 정치적 공동체의 시민적 권리가 공동화됨에 따라 '시민'은 수동적인 '소비자'의 지위로 전락했다. 대부분의 제도와 절차가 상품화됨에 따라 상품논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즉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투자의 논리를 따른다. 교육은 더 이상 공동체적 덕성을 가진 시민을 양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교육은 더 안정적인 직장과 화폐적 보상을 위한 투자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학생들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성적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경쟁과 비교에의 노출은 동료 시민과 대화하고 공존하는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공격적인 경쟁적 심성을 심어주고 있다. 타자는 모두 경쟁대상인

www.kci.go.kr

것이다. 대학도 더 이상 학문연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윤이 되는 학문영역은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순수학문의 영역은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은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상당수의 연구 프로젝트 또한 기업에 의해 지원된다. 사회의 공공이익보다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이익과 귀속감은 뒤로 한 채 보상이익만을 좇는 재개발 현장에는 현금계산의 논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분명한 개발 사업도 개발 이익 앞에서는 무력하다. 생태적으로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굴업도에 골프장과 콘도를 짓겠다는 개발회사의 발상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는 분명하다. 기든스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찰적인' 개인 행위자들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매우 민감하고 능동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촉발된 '쇠고기 반대시위'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지만 타자의 일일 뿐인 '용산 참사'는 일부 사회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이다. 성찰적 행위란 계산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적 이성(economic reason)에 근거한 합리적 행위일 뿐인 것이다(Gorz, 1989를 보라). 자유주의자들이 기초했던 이기적 개인 행위자의 이념형이 현실에서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인간 자체도 계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장기가 매매되고 인간은 스스로를 자본, 인간자본(human capital)이라고 부르며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다. 육체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체육관을 찾는다. 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투자에는 끝이 없다. 계속되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좌절은 스트레스로 점철된 일상을 벗어날 수 없다.[7]

개인들이 이처럼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모두가 무한 경쟁이 결코

7) 이진경(2009)은 현대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신체와 생명마저도 상품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www.kci.go.kr

가져다줄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기준은 매일 매일의 광고 속에 등장하는 고급승용차와 도심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널따란 아파트를 소유하고, 주말마다 가족을 동반해 교외를 드라이브하는, 그리고 고급 식당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남자와 여자가 누리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대상, 그저 욕망의 대상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은 그 욕망의 대상을 향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비행위이다. 소비는 화폐취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더 많은 화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제한된 안정된 지위를 향해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상품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James, 2007).

이 절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의 주체성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된다. 행복한 삶을 위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 소비는 인간의 필요가 아닌 이윤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가공되는 대상을 향한 욕망의 추구(욕망의 실현이 아니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푸코적 의미에서의 규율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시장의 힘과 상품-화폐의 논리는 그것에 순응적인 육체(docile body)를 만들어 내고 이기적으로 계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우리들 의식 깊이 뿌리 내리게 했다. 사회적 기준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무능력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무한의 경쟁과 스트레스의 세계로 내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회색빛 소비주의사회로부터 벗어날 희망은 없는 것인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희망의 길'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희망의 길에 접어들기 전에 대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비판적 사회이론과 그것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상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생겨나는 권위주의적 길에의 유혹이다. 종속적 주체화에 동반되는 저항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고 이념적으

www.kci.go.kr

로 제시된 보편적 원리에 따라 대중을 계몽하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4. 비관적 현실과 권위주의로의 유혹

소비주의 사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전면화(공동체의 붕괴, 공공선의 소멸, 투자자와 소비자로서의 주체, 욕망하는 주체, 순응적 육체)는 인간성의 상실(만일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과 자연의 파괴를 동반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에 걸맞은 주체 또는 육체로 구성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포함해서 해방(emancipation)을 기획했던 수많은 사상가와 혁명가가 부딪혔던 난점은 해방의 주체여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순응적 주체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룩스의 삼차원적 권력론을 통해 이러한 난점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권위주의로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스〔Steven Lukes, 2004(1974)〕는 달(Robert Dahl)의 경험주의적(empiricist) 또는 행동주의적(behaviorist) 권력이론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Dahl, 1961). 또한 달을 비판하고 있는, 하지만 달의 권력론이 터하고 있는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개량주의적 권력 이론도 함께 비판한다. 그리고 비판에 멈추지 않고 권력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급진적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3차원적 권력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해방의 주체로서의 대중을 온전히 복원하는 데는 실패한다. 이번 절은 룩스가 직면했던 이론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주류 정치학이 선호하는 표출된 선호(expressed preferences), 예를 들어, 투

www.kci.go.kr

표행위만으로는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소위 말하는 비결정(non-decision) 때문인데,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또는 제도적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Bachrach & Baratz, 1962). 즉 제한된 자유민주주의적 제도 안에서 관찰 가능한, 표출된 선호를 권력관계의 전부로 파악하는 것은 관찰될 수 없는 제도 그 자체에 각인된 이데올로기적 구조,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한 배분을 분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의 작동과 물질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의 이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ukes, 2004(1974)를 참조하라]. 예를 들어 보자.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와 국회에 의해 수립되는 많은 사회·경제적 정책의 수립은 표출된 선호의 관계로 본다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 그러나 제도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적 기제 때문에 여성, 장애인, 아동, 성적 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표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원과 지식에서 우월한 지배집단에 비해 빈곤층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방법과 통로를 알지 못한다. 룩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표출된 선호만으로 권력관계를 다루는 접근을 일차원적(one-dimensional) 권력이론이라고 비판한다.

룩스는 비결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가들이 일차원적 권력론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권력을 표출되지 '못하는' 선호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충분히 비판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고작 해야 새로운 의제 설정을 요구하는 이차원적 권력이론에 불과하다. 즉 양자는 공히 경험론적인 인식론(결정이든 비결정이든 표출된 주관적 선호만을 문제로 삼는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권력배분을 구조화하는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제도 안으로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려 시도할 뿐이다. 기껏해야 압력단체 또는 이익단체를 넘어설 수 없다. 룩스는 이러한 경험론적 접근에 반대하며 실재론적인(realist) 기준을 통해 권력관계를 분석하려 한다. 그래서 그의 접근은 삼차원적 권력이론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일차원적 권력이론은 자유주의적이며, 이차

www.kci.go.kr

원적 이론은 고작 해야 개량주의적인데 반해서 그의 입장은 권력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급진적이라고 주장한다.[8)]

그가 삼차원적 권력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개념은 객관적 이익(objective interests)이다. 객관적 이익을 왜곡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해 급진적 비판을 제시한다[Lukes, 2004(1974)를 보라]. 여성, 장애인, 아동, 성적 소수자로서 객관적 이해가 있음에도 지배적 질서와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이해관계의 인식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의 객관적 이익을 인식하는 자율적 주체를 삼차원적 권력론의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룩스의 삼차원적 권력이론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객관적 이해를 왜곡하는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 구조 안의 행위자들이 아니라 객관적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제삼자(관찰자)에 의해 계몽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관계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주체들이 요청되지만 주체들은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효과 아래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주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벤튼(Ted Benton)은 이것을 '해방의 역설(the paradox of emancipation)'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전략은 기존질서에 대한 비판을 통한 집단적 자기해방(collective self-emancipation)의 실천이지만, 기존질서는 집단적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작·왜곡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종속계급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한 해방은 불가능하

8) 사회운동론에서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이나 정치적 기회구조론(political opportunities approach)은 모두 기존의 정치체(polity)를 기정사실화하고 제도적 절차로부터 배제된 집단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채널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2차원적 권력이론을 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유럽적인 신사회운동론은 기존의 제도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적 구성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적이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Jenkins & Perrow (1977); McAdam(1982); McAdam et al.(1988); McCarthy et al.(1987); Tilly (1978)를 보라. 이들에 대한 Hannigan(1985)의 비판과 Scott(1990)의 요약은 자원동원이론과 정치적 기회구조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보여준다.

www.kci.go.kr

고, 해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스스로의 해방(self-emancipation)이 아니다"(Benton, 1981: 162). 여성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의 자기 해방을 통한 가부장적 질서의 극복이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에 의한 순종적인 '여성성'에의 순응인 것이다.

룩스는 해방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이론 틀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는, 행위자들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조건을 상정하는 것이다. 마치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규범적 상황을 상정한다. 그런 상황에서 인식된 이해가 객관적 이해라는 것이다.[9] 그러나 실재의 행위자들과 반사실적 주체들 사이의 간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의 '객관적' 위치(계급적 위치와 같은)는 '객관적'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론에 가까운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심에 두는 룩스로서는 공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해석이다(Clegg, 1989: 97). 세 번째의 선택지는 피지배 집단은 이데올로기적 종속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합적 행동(파업, 대중시위, 캠페인 등) 속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룩스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람시적 길이다〔Lukes, 2004(1974): 49~50〕.

5절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룩스가 제시한 해결책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마지막의 그람시적 길이다. 그러나 그람시적 길은 '객관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룩스의 권력이론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피지배집단에 속한 주체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 아래서 행위하지만, 현실의 착취와 억압의 경

9)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론의 초월론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측면을 실재론적인 입장에서 옹호하려는 시도는 서영표(2009a: 304~314)를 참고하라.

www.kci.go.kr

험은 때때로 불만과 저항의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불만과 저항은 표현은 많은 경우 지배계급의 담론구성체 안에서 표현되지만 그것이 직접행동으로 연결될 때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과 저항의 표출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익이라는 이미 가정된 기준을 통해 '측정'될 수 없다.

룩스는 주관적 이익(선호, 욕구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일차원적 권력론을 비판하기 위해 객관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권력론을 정립하려 시도한다. 문제는 그가 제시하는 이해관계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실재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더구나 그가 직면한 실재는 권력관계를 민주적으로 변형시켜야 할 행위 주체들이 객관적(실재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룩스는 갑자기 상당히 다른 문제 틀로 비약한다.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개인'을 최종적인 문제해결자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개인들은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묶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객관적 이해관계를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적 주체'를 해결자로 등장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룩스는 한편에서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모든 개인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가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반사실적 조건에서만 존재한다. 현실은? 현실에서 그러한 이상적 상황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능동적 주체여야 할 모든 개인이다.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발 양보해서 룩스의 입장을 '구조'와 '행위자의 능동성'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룩스의 입장은 행위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실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능동성에 주목할 뿐이다. 그는 최근 권력관계의 구조적 또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헤이워드(Clarrisa Hayward)와의 대화형식으로 발표된 논문에서 행위주체를 강조하는 입장은 "권력을 가진 행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www.kci.go.kr

비판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yward & Lukes, 2008: 12). 그의 행위주체 중심의 접근은 곧 부시와 럼즈펠드와 같은 권력집단의 책임성을 제기하는 정도에 멈추고 마는 것이다. 룩스는 그가 1974년 논문에서 제기한 피지배집단의 맹아적인 저항가능성을 일관되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가 인용하고 있는(Hayward & Lukes, 2008: 12) "권력이 없는 자들이 권력(power of the powerless)", "저항의 작은 행위들"을 통해 드러나는 "약자들의 무기(weapons of the weak)"의 중요성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10)]

룩스가 직면한 이론적 난제는 많은 생태이론가와 여성주의자, 사회주의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모두 급진적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영역(public spher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급진적 민주주의, 공영역, 시민사회의 주인공인 대중은 지배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적 구성체 안에서 순응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점이 권위주의로의 유혹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경제주의적 투쟁'을 넘어설 수 없고 따라서 선진적인 전위적 지식인과 정당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는 레닌(카우츠키)의 주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은 권위주의적인 개입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에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해방된 주체'들이 가정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중은 전위적 지식인 집단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다. 전

10) 룩스의 딜레마를 벗어나는 대안적인 길 중의 하나는 푸코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설명이다. 권력은 도처에 산재해있지만(권력에는 중심이 없다) 그것은 억압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다. 그리고 권력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저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푸코적 선택은 권력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구축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Foucault, 1998을 보라). 푸코의 권력론이 대안적 전략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평에 대해서는 Jessop(1990), Bailey(1993), Weeks(1982)를 참고하라. 멕네이(Lois McNay)는 푸코가 권력의 산재를 강조했지만 집중화된 권력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McNay, 1992: 38). 푸코에 대한 실재론적 재해석에 대해서는 Joseph(2004)를 참고하라.

www.kci.go.kr

자는 관념론적이고 후자는 비민주적이다. 둘 다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룩스는 자율적 주체를 통해 민주적 길을 옹호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권력론이 가진 관념론적 성격에 의해 권위주의적 해석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실패한다.

5. 그람시적 또는 여성주의적 대안

앞에서 분석된 비관적인 상황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지의 낙관'을 보여주려 한다. '의지의 낙관'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사상으로부터 그 단초를 찾을 것이다.

그람시에 따르면 대중은, 한편으로 고립화된 개인들로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지배적인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는 저항적 행위를 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지배계급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저항의 계기(촛불 시위와 용산참사와 같은)를 통해, 즉 행동을 통해 '잠재적' 저항의 힘을 표출한다는 것이다(Gramsci, 1971: 326~327을 보라).

1) 그람시적 길

그람시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 실천의 철학은 처음부터 논쟁적이고 비판적인 외양으로 스스로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유양식과 구체적 사상(현재 존재하는 문화적 세계)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실천의 철학은 '상식(common sense)'에 대한 비판이어야만 하는데, 그러나 그

www.kci.go.kr

> 시작에서는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철학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실천의 철학이 무로부터 과학적 형식의 사고를 모든 개인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위를 혁신하고 비판적이게 하는 것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Gramsci, 1971: 330~331).

여기서 그람시가 말하는 '상식'은 역사학자 E. P. 톰슨(E. P. Thompson)이 보여주었던 민중적 문화의 세계일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의 민중은 '도덕 경제(moral economy)'와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이라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아래서 움직였지만 그것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착취를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상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집단적으로 자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민중적 문화는 지배적인 담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Thompson, 1991(1963)과 1991을 참조]. 그러나 그람시는 이러한 자원주의적(voluntarist) 해석에서 멈추지 않는다. 민중적 문화의 독자성은 항상 '상대적'이며 지배적 이데올로기 구성체와 생산양식 안에서 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적 문화와 민중적 의식은 저항적 운동의 맹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지배적 이데올로기 구성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잠재적 상태를 벗어나 저항의 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 개입이 요청된다. 이점이 철학자 알튀세르가 구조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서영표, 2009a: 101~110). 문제는 이 두 가지 계기 사이의 긴장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종속적 주체성의 구성과 저항적 주체성의 맹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 경쟁이 사회의 구석구석 침투해 버린 2009년 한국을 사는 우리에게 '상식에 기초하지만 상식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톰슨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민중적 문화는 저항적이고 역동적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시작되었던 2008년 봄의 촛불시위는 그러한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

www.kci.go.kr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비록 그것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는 자신들의 현실을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매개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알튀세르라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운반하고 있는 관념들(고립된 시민, 개별화된 소비자 등등)의 압도적인 힘을 강조했을 것이다. 알튀세르는 아마도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표층의 문제에만 주목하는 촛불시위를 한계를 비판하고 그 동력이 곧 소진될 수밖에 없음을 '과학적'으로 예측했을 것이다.

그람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두 가지 계기(톰슨이 강조하는 저항의 계기와 알튀세르가 강조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효과의 계기)를 서로 대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 민중의 전통과 문화는 '삶의 질',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이데올로기들이다. 사람들은 그 기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는 분노하게 되고 저항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삶의 질', '인권',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저항과 분노가 대안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개별화된 시민과 소비자로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다. 이것이 알튀세르가 강조하는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개입해야만 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전자만을 강조하게 되면 현실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후자만을 강조하게 되면 권위주의적 정치이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편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학적 지식의 성격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의 역할은 '삶의 질', '인권', '자율',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불만과 저항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맹아적 형태의 헤게모니가 가지는 잠재적 힘(모든 사람의 자기 해방을 향한 잠재적 경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맹아적 헤게모니가 대안적 전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또한 무수히 많은 불만과

www.kci.go.kr

저항의 지점이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인식되는 불만과 저항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과학적 분석이 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실천적 지식'의 한계지점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불만과 저항 사이에 소통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과학적 분석의 역할이라는 것이다(상식에 대한 비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지식의 제시가 현실에 존재하는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드러내고 그것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 자체가 실천적 지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열린 지식 체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서영표, 2008).

실천적 지식이 결여된 과학적 지식은 공허하고 과학적 지식이 없는 실천적 지식은 맹목적일 수 있다.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은 미리 정해진 '사회주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수많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상상력과 실천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과학'은 이러한 상상력과 실천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폄하하는 지배적 담론의 '사이비 과학'을 비판하고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상식에 기초하기).

2) 여성주의적 길

대중은 지배계급의 개념과 언어를 빌어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표현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지배계급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Gramsci, 1971: 326~327). 이것이 그람시가 '모든 사람은 철학자'라고 선언했던 근거이다. 직접적으로 그람시와의 연관을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상당수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여성주의자들(특히 여성주의 관점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적 생태여성주의자들[11])은

www.kci.go.kr

이러한 그람시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12] 여성의 위치와 관점을 절대시하고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해 사회비판을 시도하는 환원주의적 생태여성주의자와 모든 고정된 사회적 위치를 해체하는 탈현대적 여성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주의 관점이론과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의 위치와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가부장적이고 반생태적 사회에 대한 잠재적 저항 가능성을 분석한다(New, 1998). 다음은 이들 입장의 핵심을 보여준다.

> 피억압자들이 억압자들에 대항해서 투쟁할 때 비로소 지식이 출현한다. 여성의 경험이 지배적인 계급/인종에 속하는 남성의 사회적 경험의 관점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보다 좀 더 진실에 가까운(또는 덜 허구적인) 사회현실의 이미지가 되는 것은 남성지배에 대항한 여성주의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다. 따라서 여성주의관점은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성취물〔관점은 이런 점에서 전망(perspective)과 다르다〕이다. 여성주의 관점을 달성하려면 지적·정치적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주의 관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지배적인 젠더' 경험이 만들어 낸 편파적이고 왜곡된 전망(perspective)을 대신해서, 여성의 사회적 경험을 생산하는 (지배적인 남성적 전망으로부터) 멸시받는 활동의 관점에서 자연 및 사회생활을 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지적, 정치적 투쟁에 참여해야만 한다(Harding, 1987: 185).

> 여성의 경험이 제공하는 공통점들이 여성에게 인식론적으로 우월한 입장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그 공통점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능하게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여성 또

11)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친화력이 존재한다(Mellor, 1997).

12) 추상적인 남성적 이론과 과학을 비판하는 여성주의적 저작은 많다. 특히 정치적 전략과 관련해서 여성의 경험을 강조한 초기적 저작은 Robowtham, et al.(1979)를 참조하라.

www.kci.go.kr

> 는 그 어떤 사회적 집단도 인식론적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예속된 사회적 집단의 관점은 두 가지 사실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그들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들의 종속적 위치에 의해서 억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취하게 하는 지식이 구성될 기회. 이것은 모든 억압적 사회집단에 적용될 수 있다. 지식은 언제나 매개된 지식이며, 서로 다른 해석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분적이다. 바로 이러한 지식의 제한된 성격 때문에 임금노동, 또는 지불되지 않는 가사노동, 또는 출산 등이 인식론적으로 우월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성찰적인 행위자에게 구체적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충족되지 않는 필요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점이다. 일단 이러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기존에 주어진 개념적인 도구들은 일관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으며 허위적인 것으로 드러난다(New, 1998: 368).

여성은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끊임없는 여성성의 수행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 교육을 통해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통해 여성의 육체로, 여성이라는 주체로 구성된다. 그러나 바로 그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기득권자인 남성이 볼 수 없는 억압적 권력관계를 인식하게 한다. 그것은 지속적인 인식이 아니며 여성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항상 얻게 되는 인식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도 아니다. 따라서 그람시가 지적했던 '상식'으로 존재하며 그 상식은 비판적인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 현실적인 투쟁에의 개입이 필요하며 과학적 지식의 개입을 요청한다(Harding, 1986과 Hartsock, 1997 참조).

그러나 여성주의적으로 해석된 그람시적 통찰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문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적인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위치와 관점은 언제나 맹아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는 도저히 덮어버릴 수 없는 물질적 착취와 이데올로기적 억압은 헤게모니적 지배의 완성을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게 한

www.kci.go.kr

다.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헤게모니의 변형과 재구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정글 속에서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스스로를 피폐하게 하는 삶의 양식을 유일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료 인간들로부터 소외되고 자연과 인간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근대시민혁명 이후에 역사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유적-존재'로서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면 현대인은 유적-존재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13] 그러나 바로 이 소외, 즉 착취와 억압의 '경험'은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탈구되는 순간들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주체, 소비하는 기계로서의 주체인 우리는 그 소비의 계기 안에서 발생하는 탈구로부터 저항적 주체로의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14]

6. 대안적 쾌락주의-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제 이 글의 목적지인 소비 문제를 다룰 차례가 되었다. 우선 소비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조건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13) 초역사적인 인간의 본질로서의 '유적-존재'는 부정하지만 근대 이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 인권개념에 근거한 '유적-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보편적 인권개념에 기초한 '유적-존재'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대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발리바르는 지배계급에 의해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을 피지배계급이 받아들이고 그 보편적인 것(인권, 민주주의, 정의 등등)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피지배계급은 기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상상적인 것(보편적으로 제시된 것)과 스스로의 현실이 대조되는 순간이 반역(revolt)의 순간인 것이다(Balibar, 1993: 13). 같은 맥락에서 이종영은 "우리의 전부가 자본주의적 공간에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적 외부장소'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공간에 살고 있으므로 '내적'이고, 그렇지만 자본주의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외적 장소'"인 것이다(이종영, 1998: 88).

www.kci.go.kr

상품관계, 즉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서 소비는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즉 '소비'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소비가 신자유주의적 조건과 관계 맺는 방식인 '소비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소비주의라는 맥락에서 '소비'는 필요의 충족이 아닌 이윤논리에 의해서 창조된 욕망을 좇기 위한 행위로 드러난다. 소비주의에서의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바, 소비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소비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서영표, 2009a: 11장). 이기적인 경쟁 논리 위에 세워진 소비주의 문화에서 개인들의 맹목적인 소비행위가 가져오는 생태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는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람시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여성주의 관점이론을 통해 발전시켰던 일상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잠재적 저항성의 계기들을 '소비주의적' 소비 행위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15]

이 지점에서 필자는 소퍼의 대안적 쾌락주의(alternative hedonism)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소퍼는 자본주의적 소비주의 문화에 근거한 행복의 추구 – 욕망의 추구 – 는 행복의 전제 조건인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욕망의 추구는 필요충족에 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소비를 통한 욕망의 충족은 사회적 유대와 도덕적 통합을 붕괴시키고 생태적 조건을 파괴한다. 소퍼는 이러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는 소비자본주의를 쾌락주의(hedonism)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것은 대안적 쾌락주의인데, 이것은 시장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필요들로부터

15) 트렌트만(Frank Trentmann)은 '소비자' 개념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면서 영국에서 소비자 개념이 등장하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890년이며 이때의 소비자 담론의 초점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양심적 소비자에 관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소비자 개념 또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일 뿐이다(Soper, 2008c: 193에서 인용).

www.kci.go.kr

출발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빠른 이동이 소비문화의 쾌락이라면 아이들의 안전, 소음과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자유,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의한 건강한 생활 등은 대안적 쾌락이다. 승용차 이용이 가져다주는 쾌락은 안전의 위협, 각종 오염,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 등 각종 질병의 발생을 초래한다. 여기서 대안적 쾌락주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양식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의한 안전한 공간의 확보와 쾌적한 생활조건, 그리고 건강한 신체일 것이다(Soper, 2000).

물론 소비주의적 쾌락주의를 넘어서 대안적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인 목표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획득된 실천적 지식은 비록 그것이 시장의 힘에 의해, 그리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문화에 의해 억압되면서도 맹아적 형태의 대안적 행위양식을 보여준다. 행위자들은 자본주의적 소비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필요들에 대한 정식화되지 않는 암묵적(tacit)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퍼는 대안적 쾌락주의가 제시하는 삶의 양식은 결코 규범, 이상, 유토피아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더군다나 인식되어야 할 '객관적' 이해관계의 기준으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규범, 이상, 유토피아에 존재하는 인간 주체들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수많은 혁명가를 권위주의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소퍼의 주장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내가 보다 지속가능한(즐거운) 소비 양식의 출현을 향한 이러한 변화하는 반응을 환영함에도, (나의 작업의) 주된 목적이 현재의 소비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을 '거짓'으로 비판하거나 객관적으로 좀 더 필요하거나 진실된 소비의 특정 양식을 방어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발전시키려 시도했던 것은 무엇이 필요로 되어야만 하는지, 욕망 되어야 하는지, 또는 실제로 소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www.kci.go.kr

> 그들의 필요와 선호의 '반(反)'소비주의적 측면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었다. 즉 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하다고(원한다고) 공언하거나 그렇다고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를 실제로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된 그리고 심지어는 상상된 필요의 수준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쾌락주의적 열망과 그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의 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탐색하려 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소비양식에 대한 주체의 문제로부터 유리된 생태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불편함과 연결된다(Soper, 2008a: 180~181).

소퍼가 제시하는 전략은 현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상주의적 규범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재론적(realist)이다. 우리가 처한 일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폐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경쟁적인 일상에서 피로감을 느낀다. 한편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도저히 실현되기 어려운 전원적인 삶, 생태적인 삶, 느린 삶을 보여준다. 일상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식재료에 의존하고, 값싼 외식과 정크 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텔레비전 속에는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싱그러운 먹을거리들이 등장한다. 요리할 시간조차 없이 쫓기는 삶을 살지만 텔레비전, 신문, 잡지에는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들과 기사들이 넘쳐난다. 재개발에 동반되는 이익과 보상금에 목을 매지만 아련한 기억 너머 속의 시골 풍경이 사라져 감을 한탄한다. 사람들은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인간적 필요들이 끝없는 일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소비를 통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Thomas, 2008). 소퍼가 대안적 쾌락주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맹아적 인식이다(Soper, 2007과 2008b를 참조하라).

문제는 이런 인식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대안적 삶에 대한 열망은 상

www.kci.go.kr

품-소비사회의 구조적 조건의 무게에 짓눌려 체계적인 저항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적 쾌락의 추구마저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소비해야 하는, 그리고 돈을 주고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조건은 화폐소득-소비의 악순환으로 사람들을 되돌려 넣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불만과 저항 또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무리 지배적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완벽하게 자본주의화 또는 상품화할 수는 없다. 지금은 이것마저도 붕괴하고 있지만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자본의 논리로 완전하게 포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리는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동이기 때문이다.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사이의 우정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순간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 곳곳에 수세에 몰려 있는 기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적 공동체들도 존재한다. 생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같은 대안적 운동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면 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대안적(비시장적) 사회관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6] 우리의 과제는 대안적 생활, 실천의 공간을 지키고, 만들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 속에서 대안적 인간관계, 타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적 윤리와 더불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김성균·구본영, 2009).[17]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방식과 '다르게 살 수 있으며', 다

16) 톰슨이 노동조합의 초기 형태를 분석할 때, 그것은 자본주의적 물결로부터 직인들의 공동체를 방어하려는 시도였다. 상호부조가 가장 핵심적인 원리였다〔Thompson, 1991(1963)〕. 노동조합이 지역의 쟁점과 사회운동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사례들에 기초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운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 대해서는 워터만(Waterman, 1999)과 무디(Moody, 1997)를 참조하라.

17) 물론 공동체적 삶의 경험이 인간을 완전히 호혜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

www.kci.go.kr

르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소퍼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권리주장은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잠재적 저항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O'Neill, 1998과 2002를 참조).[18]

7. 맺음말

본문에서 신자유주의적 소비주의 사회의 양상과 그것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 행위자들의 주체성 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했다. 소비주의는 인간의 생존과 번성보다는 경제적 합리성과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개념이었다.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성장과 소비의 논리는 생태계의 파괴와 인간 사회의 연대성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통한 자유의 구현을 주장하거나, 소비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의 성찰성 증대를 찬양하거나, 다양성의 번성을 옹호하는 이론적 입장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자유, 성찰성, 다양성이 소비자와 투자자의 자유, 성찰성, 다양성이라는 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적 소비주의와 경쟁논리는 일상생활 곳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주체성과 육체를 규율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람시와 여성주의 관점이론을 통해 이러한 소비주의의 논리

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공상적이다. 문제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이기적 욕망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은 이러한 대안적 방법의 단초를 보여줄 뿐이다.

18) 길버트(Jeremy Gilbert)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대한 저항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성(multiple relationality)에 판매자-구매자라는 단일한 관계성을 강제하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한다. 반자본주의적 투쟁은 상품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다(Gilbert, 2008: 562~563).

www.kci.go.kr

와 규율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지배는 항상 저항의 계기를, 지배적 헤게모니는 탈구의 계기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항과 탈구의 계기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실천적 지식을 구성한다. 이러한 실천적으로 구성된 맹아적 저항은 지배적 질서의 바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그람시와 여성주의 관점이론의 핵심주장이었다.

필자는 소퍼의 대안적 쾌락주의가 소비의 영역에서 그람시와 여성주의 관점이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소퍼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친화력이 존재한다. 소비는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윤동기에 의해 지배되지만 소비 행위 그 자체는 항상 그것과 상반되는, 즉 소비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필요의 인식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인식은 단속적이고 순간적이며 통합적 인식으로 발전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행위가 동반하는 대안적 쾌락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적 사회형태와는 다른 삶의 양식을 '상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는 실천적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맹아적 저항은 조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과학적 분석이 요청된다. 과학적 분석은 주관적으로 경험된 불만과 저항, 또는 탈구가 구조적 문제로부터 연원한다는 점을 밝혀주어야 하고 동시에 그러한 구조적 문제와 결부된 사회적 적대의 선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적대의 선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적대를 전제로 한 연대의 토대를 찾아내는 것을 내포한다. 과학적 지식이 맹아적 저항이 구성되는 실천의 세계에 개입하는 마지막 방법은 연대의 토대가 조직화된 대안적 실천으로 나가기 위해 요청되는 상호대화와 토론, 그리고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적 분석이 실천적 지식의 세계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비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비판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것은 짧은 논문에서 논의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이론적 작

www.kci.go.kr

업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추상적 규범이 아닌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소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저항적 주체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과 노동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Fine & Leopold, 2002). 단 생산과 노동의 영역을 변혁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계기로서의 소비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을 뿐이다. 소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퍼 자신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Soper, 2008c: 204~205).

www.kci.go.kr

Abstract

The Critique of Consumerism and Alternative Hedonism: For Constituting the Non-Capitalist Subjectivity

Seo, Young-Pyo

Our everyday life consists of diverse activities of consumption. Though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consumption without production,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call contemporary capitalism consumer capitalism. Thus, in order to critically analyze the existing system, we need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life that force us to be 'consuming subject' through competitive logic of market. Additionally, we have to raise a further question: Could we, who are constituted as consumerist subjects, overcome these social conditions? Many social theories that have sought to emancipate the people usually have presupposed either normatively constructed and counter-factual subject, or intellectuals free from dominant ideologies, which has been criticized by post-modern thinkers. The latter's elitist character is a mirror image of the former's idealism. To avoid both an idealist construction of alternative subjectivity and elitist model of social change, we must pay attention to cleavages and dislocations of capitalist and consumerist subjects themselves. This paper would argue that unsustainable and consumption-based capitalism fails to meet people's needs as natural being embedded within the nature as the part of it. We are not happy with these kinds of consumption. The gap between consumersit pleasure and alternative pleasure makes capitalist subjectivity unstable and implies a possibility of construction of resistant subjectivity. For investigating this possibility, this paper employs Kate Soper's conception of 'alternative hedonism'.

Keywords: consumerism, alternative hedonism, neo-liberal subjectivity, feminist standpoint theories, Antonio Gramsci

www.kci.go.kr

참고문헌

구본영·김성균. 2009.『에코뮤니티』. 이매진.

모스, 마르셀. 2003.『증여론』. 한길 그레이트북스.

서영표. 2008.「영국 신좌파 논쟁에 대한 재해석－헤게모니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 ≪경제와 사회≫ 80호, 248～274쪽.

_____. 2009a.『런던코뮌: 지방사회주의의 실험과 좌파 정치의 재구성』. 이매진.

_____. 2009b.「영국의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 테드 벤튼과 케이트 소퍼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7호, 318～351쪽.

오코너, 제임스. 1993.「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이론적 서설」. ≪공간과 사회≫ 통권 제3호, 33～62쪽.

이종영. 1998.『욕망에서 연대성으로』. 백의.

이진경. 2009.「현대자본주의와 생명의 권리－생명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탈경계 인문학≫, 2(2), 29～53쪽.

크로포트킨,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2005.『만물은 서로 돕는다』. 르네상스.

폴라니, 칼. 2009.『거대한 전환』. 길.

프루동, 피에르 조제프. 2003.『소유란 무엇인가』. 아카넷.

Adorno, T. & M. Horkheimer. 1969.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Seabury Press.

Bachnrach, P. & M. S. Baratz. 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 reprinted in John Scott(ed.). 1994. *Power: Critical Concepts*, vol II, London & New York: Routledge.

Bailey, M. E. 1993. “Foucauldian Feminism: Contesting Bodies, Sexuality and Identity.” in C. Ramasonoglu(ed.). *Up against Foucault: Explorations of Some Tensions between Foucault and Feminism*. London: Loutledge.

Balibar, E. 1993. “The Non-Contemporaneity of Althusser.” in E. A. Kaplan & M. Sprinker(eds.). *The Althusserian Legacy*. London: Verso.

Benton, T. 1981. “‘Objective Interest’ and Sociology of Power.” *Sociology*, 15(2), 161～184.

_____. 1993. *Natural Relations: Ecology, Animal Rights and Social Justice*. London: Verso.

_____(ed.). 1996. *The Greening of Marxism*. New York and London: Guilford Press.

Callinicos, A. 1989. *Against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Polity Press.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London: Edward Anorld.

_____. 1978. *City, Class and Power*. London: Macmillan.

Clarke, J. 2005. “New Labour’s Citizens: Activated, Empowered, Responsibilized, Abandoned?” *Critical Social Policy*, 25(4), pp. 447～463

Dahl, R. A. 1961. *Who Govern?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New Haven,

www.kci.go.kr

CT: Yale University Press.
Devine, P. 2002. "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 *Science and Society*, 66(1), pp. 72～85.
_____. et al. 2009. *Feelbad Britain: How to Make It Better*. London: Lawrence and Wishart.
Dickens, P. 2008. "Cognitive Capitalism and Species-Being." in S. Moog and R. Stones (eds.). *Nature, Social Relations and Human Needs: Essays in Honour of Ted Benton*. London: Palgrave.
Driver, S. and L. Martell. 1998. *New Labour: Politics after Thatcherism*. Cambridge: Polity Press.
Fine, B. and E. Leopold. 2002. *The World of Consumption: the Material and Cultural Revisited*. London: Routledge.
Finlayson, A. 2003. *Making Sense of New Labour*. London: Lawrence and Wishart.
Foucault, M. 199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The Will to Knowledg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Gilbert, J. 2008. "Against the Commodification of Everything." *Cultural Studies*, 22(5), 551 ～566.
Gill, S. 1996.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4(3), pp. 399～423.
Glyn, A. 2007. *Capitalism Unleash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London: Verso.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Hannigan, J. A. 1985. "Alain Touraine, Manuel Castells and Social Movement Theory: A Critical Appraisal." *Sociological Quarterly*, 26, pp. 435～454.
Harding, S. 1986.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1987. "Conclusion: Epistemological Questions." in S. Harding(ed.). *Feminism and Methodolog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Hartsock, N. 1997. *The Feminist Standpoint Revisited and Other Essays*. New York: Basic Books.
Harvey, D. 1991.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hange*. Oxford: Blackwell.
_____.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yward, C. and S. Lukes. 2008. "Nobody to Shoot?: Power, Structure and Agency: A Dialogue." *Journal of Power*, 1(1), pp. 5～20.
James, O. 2007. *Affluenza*. London: Vermilion.
Jameson, F. 1992.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Jenkins, J. C. and C. Perrow. 1977. "Insurgency of the Powerless: Farm Worker Movement(1946～197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pp. 249～268.
Jessop, B. et al. 1988. *Thatcherism*. Cambridge: Polity Press.

www.kci.go.kr

Joseph, J. 2004. "Foucault and Reality." *Capital and Class*, No.84, 143~165.

McAdam, D.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lack Insurg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cAdam, D., J. D. McCarthy & M. N. Zald. 1988. "Social Movements." in N. Smelser (ed.). *Handbook of Sociology*. Beverly Hills, CA: Sage

McCarthy, J. D. & M. N. Zald. 198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in J. D. McCarthy and M. N. Zald (eds.). *Social Movements in an Organizational Societ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McNay, L. 1992. *Foucault and Feminism: Power, Gender and the Self*. Cambridge: Polity Press.

Macpherson, C. B. 1964.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Clarendon Press.

Marcuse, H. 1972. *Counterrevolution and Revolt*. Boston: Beacon Press.

_____. 2002/1964. *One-Dimensional Man*. London: Routledge.

Mellor, M. 1997. *Feminism and Ecology*. Cambridge: Polity Press.

Moody, K. 1997. "Towards a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Unionism." *New Left Review*, 225, pp. 52~72

Mouffe, C. 2005.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New, C. 1998. "Realism, Deconstruction and the Feminist Standpoint." *Journal for Theory of Social Behaviour*, 28(4), pp. 349~372.

O'Neill, J. 1998. *The Market: Ethics, Knowledge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_____. 2002. "Socialist Calculation and Environmental Valuation: Money, Markets and Ecology." *Science and Society*, 66(1), pp. 137~151.

_____. 2006. *Markets, Deliberation and the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Red-Green Study Group. 1995. *What on Earth Is to Be Done?*. Manchester: Red-Green Study Group

Robowtham, S. et al. 1979. *Beyond the Fragments: Feminism and the Making of Socialism*. London: Merlin.

Sanbonmatsu, J. 2006. "Postmodernism and the Corruption of the Academic Intelligentsia." *Socialist Register 2006*.

Scott, A. 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Unwin Hyman.

Soper, K. 2000. "Other Pleasures: the Attractions of Post-Consumerism." *Socialist Register 2000*, pp. 115~132.

_____. 2007. "Re-Thinking the 'Good Life': The Citizenship Dimension of Consumer Disaffection with Consumerism." *Journal of Consumer Culture*, 7(2), pp. 205~229.

_____. 2008a. "Realism, Naturalism and the Red-Green Nexus: Benton's Critical Contribution to Ecological Theory." in S. Moog and R. Stones (eds.). *Natural*

www.kci.go.kr

Relations and Human Needs: Essays in Honour of Ted Benton. London: Routledge.

_____. 2008b. "Alternative Hedonism, Cultural Theory and the Role of Aesthetic Revisioning." *Cultural Studies*, 22(5), pp. 567～587.

_____. 2008c. "'Alternative Hedonism' and the Citizen-Consumer." in K. Soper and F. Trentmann (eds.). *Citizenship and Consumption*. London: Macmillan.

Thomas, L. 2008. "Alternative Realities." *Cultural Studies*, 22(5), pp. 680～699.

Thompson, E. P. 1991(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Penguin.

_____1991. *Customs in Common*. London: Merlin

Tilly, C.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Waterman, P. 1999. "A New Union Model for a New World Order." in R. Munck and P. Waterman (eds.). *Labour Worldwid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London: Macmillan.

Weeks, J. 1982. "Foucault for Historians." *History Workshop Journal*, 14(1), pp. 106～119.

논문접수일: 2009. 10. 30
논문수정일: 2009. 11. 18
게재확정일: 2009. 11. 24

www.kci.go.kr